

朝代별 비교를 통해 본 역사극의 특징

- 전통극목을 중심으로

오 경 희
(아주대학교)

1. 서론

역사극은 역사를 재연(再演)해 무대에 올린다. 역사극은 역사 속의 일정한 인물, 역사 속의 일정한 시대를 소재로 하지만, 일반적으로 역사적인 기록과는 차이가 있다. 일반적으로 문학적 구성물로서의 역사극은 역사 진술의 단계를 넘어서 역사현실에 반응하고 현실을 판별하고 현실에 해석을 가하며, 더 나아가 현실을 비판할 수도, 또 보완할 수도 있다. 즉, 이미 지나가버린 과거의 일이지만 역사적 소재를 취하지 않은 작품들보다 더 분명하게 현재의 관객들에게 현재로부터 과거뿐 아니라, 미래를 제시하는 힘을 가진다는 것이다.¹⁾

그렇다면 중국 전통극 경극에서의 역사극은 어떠한가? 중국에서 역사는 매우 인기 있는 소재이다. 특히 경극에서 역사적 배경을 가진, 즉 역사적 인물이나 사건을 소재로 한 극은 대다수를 차지한다. 중국의 오랜 역사만큼이나 많은 사건과 인물들이 史書 속에, 講唱, 小說 속에 전해져 끊임없이 人口에 膾炙되고 다양한 공연형태로도 만들어졌으며 경극으로도 만들어졌다. 연극은 문학과는 달리 즉각적인 반응을 보이는 관객을 상대로 하기에 공연의 횟수

1) Horst Steinmetz, 서정일 옮김, 『문학과 역사』 제1장 참조.

내지는 유무를 보면 관객의 好惡를 바로 알 수 있다. 같은 이야기가 역사로, 강창으로 소설로 쓰였지만 사람들은 알고자, 듣고자, 읽고자 한 것이 아니라 무대 위에서 보고자, 즐기고자 한 것으로 파악할 수 있다. 하지만 모든 역사 이야기들이 경극으로 만들어진 것은 아니며, 경극으로 만들어진 모든 역사극이 여전히 계속해서 공연되고 있는 것도 아니다. 필자는 경극 작품 가운데 역사극을 통해 현대 중국인들의 역사와 극화된 역사에 대한 인식의 변화, 또는 차이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이제까지 연구를 살펴보면 국내 연구에서 경극 가운데 역사극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많지 않다. 이상우는 古代歷史劇과 新編歷史劇의 比較 考察을 통해 원잡극에서 역사극을 논한 바 있고, 일부 연구자들의 明清 잡극가운데 일부 작품 또는 작가의 역사극에 대한 연구가 있을 뿐이다.²⁾ 중국에서도 역사 경극에 대한 연구는 근대시기의 정치적 의미에 주로 치중되어 있고³⁾ 수용자의 관점에서 바라본 연구는 보이지 않았다.

역사극을 관객의 입장에서 보고자 함은 역사경극에서 다루고 있는 역사적 내용이 오랜 세월을 걸쳐 전해 내려오면서 그것이 강창소설에 의해서건 다양한 형태의 공연에 의해서건 분명 사람들에게서 많은 호응을 이끌었다는 것이며 현재까지도 무대 위에서 공연되고 있다면 배우의 역량이든 그 외의 연극적 요소이든 분명 역사이야기가 가진 힘이 관객을 이끌고 생명력을 가지게 하는

2) 고대소설이나 근현대 문학에서의 역사를 배경으로 한 논문들은 다수 있으나 고대 희곡과 관련해서는 그다지 많지 않다. 그 가운데 이상우의 『古代歷史劇과 新編歷史劇의 比較 考察』에서는 중국에서의 역사극의 성격에 대한 논의들을 정리해 놓았으나 元代에 한정해 고대 역사극을 정의했고, 구체적인 작품에 대한 언급은 없다. 그 외에 안상복의 『원잡극 삼국희 연구』, 이상우의 『원대 역사극 연구』, 강계철의 『원잡극 삼국희 연구 총술』 등이 있으며 명청 전기 작품 가운데 역사극에 관한 연구가 소수 있으나 작가 또는 개별 작품위주이다. 또 현대 경극 가운데 樣板戲와 관련한 논문들이 다수 있다.

3) 이에 대해서는 高端洛, 『歷史劇與傳說劇的區別』, 上海戲劇 6, 1961. 沈起煒, 『談談歷史劇古爲今用的兩個問題』, 上海戲劇10, 1960. 楊寬, 『漫談歷史劇如何反映歷史真實問題』, 上海戲劇, 1960, 12期. 吳晗, 『歷史的真實與藝術的真實』, 戲劇報20, 1959. 『談歷史劇, 文匯報』, 1960, 12, 25. 吳白陶, 『談歷史劇的正名問題』, 江海學刊 5, 1961, 王子野, 『歷史劇是藝術 不是歷史』, 光明日報, 1962.5.8. 등을 살펴볼 수 있다.

데 분명한 역할을 했을 것이라고 보았기 때문이다. 경극이라는 공연예술의 특성상 인기를 끌고 오랜 생명력을 지녔던 경극 작품들은 대부분이 관객의 요구를 충족시키는 것으로, 관객의 역사관과 도덕관과 예술관에 부합하는 것들이었다. 그렇지 않은 것은 관객의 요구에 맞게 내용이 바뀌어 지거나 무대에서 영원히 사라졌다고 볼 수 있다.

선택받은 극목과 선택받지 않은 극목 사이에는 분명 관객의 선호도와 관련된 차이가 있을 것이다. 그것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재미’일 수도 있고, 또는 그 외에 소재 또는 배우의 문제, 또는 조대예의 선호도일 수도 있다고 보았다. 물론 그 외의 원인이 있을 수도 있고 이러한 여러 원인이 유기적으로 복합되어 나타날 수도 있다. 따라서 이러한 관계를 단계별로 파악하기 위해 경극 극목들을 전체적으로 조망할 수 있도록 본문에서는 전통극목⁴⁾ 가운데 역사 소재의 작품을 조대별로 분류하고 시대상과 함께 작품의 대체적인 분석을 통해 이들 역사 경극 작품들의 특징들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2. 본론

1) 연구 범위 및 대상 작품

경극은 청 중엽부터 발전하기 시작하여 기존의 徽劇, 漢戲, 崑曲, 梆子 등의 공연예술 상의 장점을 흡수하고 이들 극종의 우수 극목을 이어받아 새로운 극목을 만들어 냈다. 경극의 성립시기를 道光二十年(1840년) 이후로 볼 때 同治, 光緒, 宣統 연간에 경극 무대 위에서 공연된 극목은 7~8백 출정도로 보고 있다.⁵⁾ 1957년 4월 중국 문화부가 제2차 전국 희극극목 회의에서

4) 이 글에서 전통극목은 “전통극과 같은 개념이며 1949년 이전의 각 역사시기에 창작되어, 장기간의 무대경험을 통해 전해져 내려온 희극 극목들을 지칭한다. 也称“传统戏”。泛指1949年以前各个历史时期编写, 并经过长期舞台实践保留下来的戏曲剧目。”는 비교적 일반적인 의미를 적용했다. 在线新华字典 <http://xh.5156edu.com/html5/184100.html>

5) 蘇移, 『京劇二百年概觀』, 131쪽

발표한 戲曲 극목 수는 51867편으로 이는 경극을 포함한 전체 戲曲 극목을 말한 것으로 중국의 희곡 극종이 317종⁶⁾인 것을 보면 그다지 많은 극목 수는 아닌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1889년에 편찬한 『京劇劇目辭典』⁷⁾에 수록된 경극 극목을 보면 1949년에서 1965년 사이에 新編되거나 改編한 극목 또한 최대한 포함했다 하더라도 그 수가 5천여 편이 넘었다는 것은 대부분의 戲曲 극목이 경극으로 다시 만들어졌다고 봐도 좋을 것이다. 그러나 이 많은 작품들이 모두 관객들의 환영을 받은 것은 아니며 많아진 공연 기회에 비해 해마다 무대에 올리는 경극 극목의 수는 점차 줄어들고 있는 형편이다.⁸⁾

그럼 과연 어떤 작품들이 선택되었을까? 그 기준은 무엇일까? 선택 받은 작품들의 공통점은 무엇인가? 이러한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는 먼저 5300여 개의 극목가운데 대표 극목들을 선정해야했다. 연구 대상이 되는 작품들은

6) 『中國大百科全書·戲曲曲藝卷』, 587쪽

7) 『京劇劇目辭典』(이하 『劇目辭典』으로 약칭한다)은 모두 5,300여 편의 劇目을 수록하고 있는데, 1956년 제1차 全國劇目工作會議를 통해 시작된 전통극목발굴에서부터 1980년까지 진행했던 작업의 결과로 제목만이 아닌 이러한 극목들의 手抄本을 포함해서 원로 예술인들의 구술본까지 모두 5천 여 개의 극본을 바탕으로 정리했다고 「序」에서 밝히고 있다. 이 가운데 1949년부터 1965년까지 새로 만들어졌거나 바뀐 작품들도 함께 수록되어 있으며, 이 작품들은 각 조대별로 분류되어 있으며 극 줄거리와 함께 작품의 유래 및 공연관련 설명, 동일한 내용의 제목이 다른 작품의 극목 역시 포함하고 있어 경극 극목과 관련해서는 가장 많은 자료를 집대성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8) 1988년 지역잡지광고통계에 의하면 두 달 동안 15개 京劇團이 199회 공연에서 122개의 극목을 무대에 올렸는데 1993년 1, 12월 두 달간 북경지역잡지광고통계에 의하면 15개 경극단이 11개 장소에서 459회 공연을 통해 199편의 극목을 올렸고 그 가운데 梨園劇場 공연은 296회로 총 공연회수의 64%를 차지했다. 무대에서 공연되는 극목 또한 13편의 극목이 130회 이상으로 무대에 오르는 극목이 매우 제한적임을 알 수 있다. 또 1956년에서 1957년 사이 북경에서 공연한 경극극목은 203편이었지만 1993년에 북경에서 상연된 극목은 168편으로 그중 100편정도가 1956년과 동일한 극목으로 기본적으로 오래된 극을 반복해 상연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京劇現狀研究』, 中國戲劇出版社, 1996년, 95~119쪽 참조) 이와 비교해 2000년 중화인민문화부에서 발표한 “숫자로 본 각지의 극단 발전 현황(从数据看各地剧团发展现状)”을 보면 북경시 소속 北京京劇院의 당해 공연 회수만 1,194회로 아쉽게도 공연된 극목의 수를 알 수는 없지만 수적으로 봤을 때 공연기회는 많아졌음을 알 수 있다.

우선은 전통극목 가운데 古代역사극에 한정했다.⁹⁾ 무엇을 역사극으로 볼 것인가에 대해서는 역사적 사건이나 인물에서 題材를 빌려 온 작품으로 인물과 사건이 史料에 언급되어 있는 것으로 비교적 폭넓게 사용했다.¹⁰⁾

대상 작품을 전통극목 가운데 역사극에 한정했다 하더라도 사실 경극의 대부분의 극목이 역사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어 극목사전 전체를 살펴며 극목들을 모두 파악하고 전통 극목을 고르고 극목 수를 계산한다는 것은 작업량에 비해 의미가 상대적으로 크지 않다고 보아 기존의 연구서 가운데 제시된 대표적인 전통극목을 바탕으로 하여 역시 중국 희곡계에서 예술적으로 후대에 전승할 가치가 있는 대표 우수극목으로 선정한 『中国京剧音像像精粹』에 포함된 경극 전통극목들을 더했다.¹¹⁾

-
- 9) 新編역사극은 역사유물주의에 의하여 창작되어, 당시 사회주의의 정치사회적 갈등해소를 위해서 창작 보급된 것으로 시대적 특수성으로 인해 본고에서 다루기에는 무리로 보았다. 신편역사극의 경우에는 극목의 수도 많지 않고 근본이나 제작 의도 등을 알 수 있는 자료 접근성도 뛰어나 후속 논문으로 기대할 만하다.
- 10) 이에 대해서는 许思言도 같은 견해를 밝힌 바 있다. 그는 史적인 근거에 대해 正史, 野史, 軼事, 私家的 筆記, 각 문집들, 지방 문헌 등등의 文史의 자료들을 제시했다. 「论京剧剧目中的历史剧, 下」, 『戏曲艺术』, 1987年01, 10쪽
- 11) 『중국경극사』에는 1845년판 『都門紀略』(楊靜亭 著), 『花天塵夢錄』 道光年間抄本(馬彥祥 藏), 『清昇平署檔案新輯』(朱家潛 輯纂)의 목록과 함께 청 말에 궁중에서 공연했던 극목들의 명단이 제시되어 있다. 이들 가운데 일부 극목들은 궁중에서만 공연되기도 했으나 대부분은 민간에서도 공연되었던 극목들로 공연 때 민간배우를 불러 공연을 하기도 했다. 『경극지식수첩』에서 제시하고 있는 전통극목의 숫자는 모두 482개로 비교적 명확하게 전통극목의 숫자를 파악할 수 있다. 그러나 조대분류가 불명확하고 「鬧朝扑犬」을 「鬧朝擊犬」로 잘못 표기하는 등의 오류가 보인다. 『京劇二百年概觀』에는 조대별로 539편의 극목이 제시되어 있는데 『劇目辭典』의 조대 분류와 다르지 않다. 『中国京剧音像像精粹』(이하 『音像像』)으로 약칭한다)은 중국이 1985년부터 2006년까지 21년에 걸쳐 70여 개의 기관, 3만 여 명의 참여하여 제작한 대규모 경극 영상자료집이다. 여기에는 1907년에서 20세기말까지의 경극 355部(여기엔 昆曲이 14부 포함됨)이외에 評劇이 22부와 北方 鼓曲 124부도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노래 연기를 주로 하는 靑衣와 老生의 작품을 위주로 수록하다보니 武生, 武旦, 丑 등의 몸 연기 위주의 극목들이 다수 누락되었다.

본 연구를 위해 작성한 전통극목 목록은 『中國京劇史』에 제시되어 있는 1845년판 楊靜亭의 『都門紀略』, 道光年間 抄本 『花天塵夢錄』, 朱家潛 輯纂의 『淸昇平署檔案新輯』에 수록된 극목 193편과 『京劇知識手冊』에서 제시하고 있는 전통극목 482편, 『京劇二百年概觀』에서 제시하고 있는 극목 539편, 『中國京劇音配像精粹』의 경극 극목 355편의 목록을 정리한 것이다. 이렇게 선정된 경극 전통극목 작품 가운데 여러 보도들을 통해 제시되어 있는 최근의 TV나 극장, 각종 대회에서 공연되고 있는 전통 극목들을 확보해 비교적 근래에 경극 무대에서 공연되어지는 극목들¹²⁾이 있는지를 살피고 다시 이러한 극목들이 역사적인 인물 또는 사건과 관련이 있는지를 살폈다.

중국 경극 작품의 목록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약간의 어려움을 밝힌다면 이 작품들은 각 자료의 수록과 관련해 약간의 혼란이 있는데 『중국경극사』의 목록에 제시되어 있지만, 『京劇二百年概觀』이나 『京劇知識手冊』에는 없기도 하고, 극목명도 일관되지 않기도 하였다. 예를 들어 「紅鸞禧」의 경우에는 『花天塵夢錄』에 수록되어 있지만 기타 목록에서는 찾을 수가 없는데, 현대에 와서 「金玉奴」라는 극목 명으로 공연되고 있었으며 「棒打薄情郎」 역시 같은 작품이다. 또한 「哭秦庭」은 『中國京劇史』에는 「刺秦庭」으로 잘못 표기된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극목 명은 바뀌었지만 여전히 공연되고 있는 극목이나 이름이 잘못된 극목들이 다수 발견되었다. 이렇게 하나의 극목이 어느 자료에는 오르고 어느 자료에는 왜 오르지 않았는지, 또 극목명이 왜 바뀌었는지의 상관관계를 따지기에는 본 논문에서는 다소 무리가 있다고

12) 주로 보도자료를 통해 「전국청년경극배우 TV선발대회全國青年京劇演員電視大選賽」, 「제1회 청년경극배우 북경 무대 초청경연대회首屆青年京劇演員北京舞台邀請賽 2011」등의 대표성을 지닌 각종 대회에 참가한 전통극목 및 수상작, 2010년 「전국 경극우수극목공연활동全國京劇優秀劇目展演活動」, 「국가 중점 경극원 복건성방문 우수극목공연활동國家重點京劇院赴閩舉辦優秀劇目展演活動」, 「10대 우수 전통극목연출十大經典傳統劇目演出」, 「국가 경극원 우수 청년배우 보고 연출國家京劇院優秀青年演員匯報演出」 등의 국가경극원이 주최하는 다양한 공연들, 中國中央電視臺의 채널 11에서의 경극 프로그램에서 소개 되는 극목들, 「長安大戲園」이나 「湖廣會館」과 같은 정기적으로 경극공연이 이루어지는 극장들에서 공연되는 경극 전통극목들의 목록을 확보해 조사했다.

보았다. 또한 그것은 본 논문의 주된 목적이 아니기에 아래의 목록은 중국 역사경극의 면모를 대략적으로 파악하는 기초자료로 삼고자 작성해 보았다. 작품명과 함께 전체 작품 가운데 차지하는 작품의 비율도 함께 살펴보기 위해 극목사전에 소개된 극목 수는 ‘극목) 317’, 『中國京劇史』, 『京劇知識手冊』, 『京劇二百年概觀』에 제시된 대표적인 경극 전통극목의 수는 ‘경극) 32’, 현재에도 TV에서 자주 접할 수 있고 사람들이 즐겨보는 『中国京剧音像配像精粹』을 포함해 각종 대회에서 출품되었거나 극장에서 공연되고 있는 극목들은 ‘최근) 14’와 같이 표시해서 각 시대별 작품 수와 작품명을 한 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극목명에도 밑줄 표시를 해서 쉽게 알아 볼 수 있도록 했다. 『中国京剧音像配像精粹』가 보유하고 있는 극목들은 시청각 자료가 확실히 보존되어 있는 상태로 계속해서 TV에서 CCTV 채널 11을 통해 방영이 되고 있으며 전부는 아니지만 대부분의 극목이 제자들에게 의해 전해지고 있어 시청자들에게 전통극목이 익숙해지는 데 한몫을 하고 있고 이러한 극목들은 극장에서도 자주 공연되어 역시 관객을 끌어들이고 있어 최근 공연작으로 포함해도 무리가 없다고 보았다.

조대명	극목명
上古 극목) 28 경극) 0 최근) 0	
商 극목) 102 경극) 3 최근) 0	乾元山 大回朝 渭水河
周.秦 극목) 317 경극) 32 최근) 14	「慶陽圖」「掘地見母」「孝感天」「伐子都」「焚綿山」「摘纓會」「閭朝擊犬」「武昭關」「浣紗記」「要離刺慶忌」「哭秦庭」「湘江會」「棋盤會」「黃金臺」「羊角哀」「大劈棺」「馬鞍山」「打城隍」「完璧歸趙」「贈綈袍」「桑園會」「火牛陣」「魚腸劍」「搜孤救孤」「戰樊城」「文昭關」「西施」「宇宙鋒」「搜府盤關」「刺王僚」「長亭會」「將相和」
兩漢 극목) 274 경극) 29 최근) 9	「鴻門宴」「陵母伏劍」「取滎陽」「霸王別姬」「未央宮」「削徹裝瘋」「監酒令」「魚藻宮」「盜宗卷」「十老安劉」「上元夫人」「昭君出塞」「白蟒臺」「戰蒲關」「草橋關」「黃一刀」「太行山」「玉門關」「孔雀東南飛」「馬前潑水」「銚期」「蕭何月下追韓信」「卓文君」「蘇武牧羊」「斬經堂」「取洛陽」「上天臺」「打金磚」「春閨夢」

<p>三國 극목) 610 경극) 84 최극) 34</p>	<p>「溫華酒雄斬」「磐河戰」「鳳儀亭」「借趙雲」「戰漢陽」「打曹豹」「神亭峪」「轅門射戟」「青梅煮酒論英雄」「瀾橋挑袍」「過五關」「金鎖陣」「三顧草廬」「漢陽院」「漢津口」「華容道」「取南郡」「戰長沙」「蘆花河」「黃鶴樓」「柴桑關」「臥龍弔孝」「反西涼」「戰渭南」「戰驪州」「賺歷城」「過巴州」「取成都」「白騎劫魏營」「白壽圖」「瓦口關」「陽平關」「五截山」「水淹七軍」「走麥城」「受禪臺」「伐東吳」「連營寨」「別宮·祭江」「孝儀節」「祭瀘江」「雍涼關」「鳳鳴關」「天水關」「罵王朗」「截江奪鬪」「紅逼宮」「壇山谷」「亡蜀鑿」「哭祖廟」「失街亭」「空城計」「斬馬謖」「捉放曹」「定軍山」「連環計」「讓徐州」「戰宛城」「白門樓」「擊鼓罵曹」「白馬坡」「古城會」「徐母罵曹」「長坂坡」「群英會」「臨江會」「借東風」「甘露寺」「金雁橋」「單刀會」「逍遙津」「白帝城」「戰北原」「胭脂計」「七星燈」「鐵籠山」「文姬歸漢」「洛神」「棋盤山」「蘆花蕩」「伐東吳」「失空斬」「臥龍弔孝」「定軍山」</p>
<p>魏晉·南北朝 극목) 96 경극) 6 최극) 3</p>	<p>「審刺客」「桑園寄子」「荀灌娘」「春秋筆」「荀灌娘」「火判」</p>
<p>隋·唐 극목) 783 경극) 96 최극) 42</p>	<p>「臨潼山」「秦瓊罵馬」「紅拂傳」「罵楊廣」「南陽關」「賈家樓」「四平山」「虹霓關」「御果園」「宮門臺」「托兆小顯」「木蘭從軍」「白良關」「取帥印」「柳迎春」「獨木關」「三江越虎城」「摩天峪」「汾河灣」「金水橋」「選元戎」「棋盤會」「三休樊梨花」「樊江關」「蘆花河」「舉鼎觀花」「徐策跑城」「嘉興府」「四傑村」「巴駱和」「水滸洞」「安天會」「十八羅漢收悟空」「沙橋餞別」「五百年後孫悟空」「真假美猴王」「十八羅漢收大鵬」「無底洞」「金錢豹」「盜魂鈴」「金刀陣」「太白醉寫」「太真外傳」「打金枝」「崑崙劍俠傳」「牧羊卷」「紅錢盜盒」「攝隱娘」「綉孀記」「刀劈三關」「滑油山」「元宵謎」「祥梅寺」「太平橋」「兩天宮」「盤絲洞」「西廂記」「孫悟空三借芭蕉扇」「鎖五龍」「昭君出塞」「雁蕩山」「李亞仙」「秦瓊觀陣」「平貴別窑」「貴妃醉酒」「梅妃」「鐘馗嫁妹」「霍小玉」「紅鬃烈馬」「珠簾寨」「飛虎山」「雅觀樓」「火燒裴元慶」「望兒樓」「斷密濶」「鎖五龍」「羅成叫關」「界牌關」「廉錦楓」「刺巴傑」「董家山」「大登殿」「武家坡」「法場換子」「碧波譚」「三擊掌」「三家店」「虹霓關」「花木蘭」「太真外傳」「打瓜園」「紅娘」「法場換子」「打登州」「麒麟閣」「除三害」</p>
<p>宋 극목)1201 경극) 140 최극) 58</p>	<p>「打櫻桃」「打刀」「困曹府」「打龍棚」「南界關」「余塘關」「下河東」「籠虎鬪」「雙鎖山」「女殺四門」「竹林計」「駕後罵殿」「金沙灘」「金陵碑」「清官冊」「黑松林」「打孟良」「演火棍」「穆柯寨」「轅門斬子」「天門陣」「破洪州」「雁門關」「洪洋洞」「珍珠烈火旗」「五花洞」「釣金龜」「行路哭靈」「花蝴蝶」「智化盜冠」「黑狼山」「蔣平鬧府」「銅網陣」「烏龍崗」「清風亭」「白綾記」「臨江驛」「賺文娟」「青霜劍」「醉打山門」「火并王倫」「挑簾裁衣」「獅子樓」「十字坡」「快活林」「鴛鴦樓」「潯陽樓」「李逵奪魚」「鬧江州」「盜王墳」「巧連環」「石秀探莊」「雁翎甲」「大名府」「秦淮河」「收關勝」「一箭仇」「丁甲山」「清風寨」「蔡家莊」「康郎山」「牛皋招親」「挑華車」「岳家莊」「鎮潭州」「小商河」「風波亭」「瘋僧掃秦」「胡迪罵閻」「獨占花魁」</p>

		<p>「玉玲瓏」「趙家樓」「活捉王魁」「寶蓮燈」「春香鬧學」「遊園驚夢」「紅梅閣」「打花鼓」「文天祥」「斷臂說書」「打鬪鴛」「鋼包勉」「四郎探母」「林冲夜奔」「活捉三郎」「赤桑鎮」「太君辭朝」「三岔口」「斬黃袍」「穆天王」「問樵鬧府(打棍出箱)」「鋼美案」「探陰山」「鋼判官」「鐵蓮花」「打龍袍」「桃花村」「花田錯」「野豬林」「蜈蚣岭」「武松打虎」「烏盆記」「李逵探母」「翠屏山」「扈家莊」「紅桃山」「打漁殺家」「艷陽樓」「潞安州」「岳母刺字」「鍾震金蟬子」「八大錘」「生死恨」「叙頭鳳」「朱砂痣」「杜十娘」「秋江」「二堂舍子」「穆桂英」「賣水」「望江亭」「穆桂英挂帥」「白水灘」「四郎探母」「楊排風」「英雄義」「兩狼尖」「李慧娘」「遇皇后」「梁紅玉」「楊門女將」「岳飛夫人」「坐宮」「雒風凌空」「天門陣」「罷宴」「洪洋洞」「包龍圖斷金蟬案」「賀后駕殿」「火燒余洪」</p>
元	극목) 127 경극) 18 최근) 8	<p>「搖錢樹」「老黃請醫」「掃地掛畫」「廣泰莊」「智取北湖州」「白涼樓」「戰潞州」「取金陵」「九江口」「奪太倉」「六月雪」「得意緣」「戰太平」「狀元印」「串龍珠」「突娥冤」「龍鳳呈祥」「下山」</p>
明	극목) 633 경극) 58 최근) 28	<p>「遇龍封官」「忠孝全」「遊龍戲鳳」「奇雙會」「鴛鴦塚」「珍珠扇」「假金牌」「酒丐」「春燈謎」「乾坤福壽鏡」「薛瓊英」「梅玉配」「庚娘」「玉京道人」「南天門」「五人義」「林四娘」「秦良玉」「沈雲英」「寧武關」「煤山恨」「明末遺恨」「史可法」「痴夢」「三進士」「鴛鴦淚」「御碑亭」「白水灘」「一捧雪」「失印救火」「九更天」「范進中舉」「拾玉鐲」「打嚴嵩」「四進士」「三娘教子」「女起解」「通天犀」「碧玉簪」「大保國」「探皇陵」「二進宮」「香羅帶」「勘玉釧」「春秋配」「荒山淚」「審頭刺湯」「失子驚瘋」「洪母罵疇」「周仁獻嫂」「鐵宮(弓)緣」「八珍珍」「法門寺」「紅鸞禧(鴻鸞禧、金玉奴)」「鳳還巢」「玉堂春」</p>
清	극목) 557 경극) 58 최근) 12	<p>「蓮花湖」「武文華」「英雄會」「九龍杯」「普球山」「劍峰山」「溪皇莊」「薛家窩」「洗浮山」「霸王莊」「獨虎營」「任丘縣」「東昌府」「殷家堡」「駱馬湖」「鄭州廟」「里海塢」「淮安府」「八蠟廟」「連環套」「俊襲人」「黛玉葬花」「千金一笑」「平兒」「晴文補裘」「香菱」「弓硯緣」「鐵公鷄」「天河配」「麻姑獻壽」「閨牛宮」「蟠桃會」「青石山」「天官賜福」「狀元譜」「英傑烈」「辛安驛」「背娃入府」「打竈王」「打沙鍋」「打面缸」「頂花磚」「打杠子」「絨花計」「探親家」「送親演禮」「乾隆下江南」「盜御馬」「坐寨盜馬」「洪母罵疇」「惡虎村」「紅樓二尤」「天女散花」「泗州城」「鎖麟囊」「小上墳」「小放牛」「思凡下山」</p>
시대불명	극목) 496 경극) 45 최근) 32	<p>「荷珠配」「一四布」「背凳」「戲迷傳」「十八扯」「紡棉花」「小過年」「蕩湖船」「遊湖借傘」「盜庫」「盜仙草」「金山寺」「祭塔」「連升店」「金翅大棚」「觀陣」「掛畫」「改容戰父」「金龜記」「江姐」「鋸大缸」「斷橋」「白蛇傳」「對花槍」「盜崖銀」「盜銀壺」「大英杰烈」「馬父教主」「小宴」「水斗斷橋」「三盜九龍杯」「壽州教駕」「荀韻流水」「浣紗河」「劉蘭芝」「戰金山」「戰馬超」「專諸別母」「砸奎駕」「春草鬧堂」「碰碑」「八仙過海」「鬧龍宮」「合鉢」「虹橋贈珠」</p>

본문에서는 현존하는 경극 극목을 바탕으로 대략적으로 각 조대별 역사극의 분포와 주요한 특징을 알아보았다. 이 글에서 다루게 될 역사 경극은 시대와 인물, 또는 사건이 史書에 기록이 되어 있는 작품들로 각 조대를 대략적으로 이해하기 위한 역사적 특징과 함께 제시하였다. 이 글이 각 경극 극목의 역사성 내지는 역사적 사실을 고증하려는 것은 아님을 밝히며, 차후에 각 개별 작품에 대한 연구가 진행될 경우에는 실제 역사적 사실과 극화된 내용 간의 역사적 고찰이 필요할 것으로 본다.

2) 역사경극의 조대별 특징

위에 제시된 목록을 바탕으로 해서 조대별로 각 시대의 특징과 비교적 주목을 끈 작품에 대해 대략적으로 살펴보았다. 그 결과 조대별 특징을 시대에 대한 선호도와 민간예술의 영향, 선명한 의도의 표출, 배우와 극작가의 영향, 이렇게 네 가지 방향에서 논의해 볼 수 있겠다. 한 시대의 작품이 한 가지의 색깔만을 가지는 것은 아니어서 이러한 분류에는 다소 무리가 있을 수도 있겠다. 그러나 역사 경극이니 만큼 극목의 경향이 시대상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라 생각하고 시대의 특징을 통해 대체적인 방향을 잡고 조대별 특징과 경극극목의 특징이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지 살펴보려고 했다. 조대별 시대 특징은 역사적인 관점에서 본 것이라기보다는 시대에 대한 개괄적인 이해를 돕고 극목의 내용을 설명하기 위해 관련한 부분을 참고로 제시한 것이다.

(1) 시대에 대한 선호도

위의 목록을 통해 중국역사극에서의 시대의 선호도를 발견할 수 있다. 예를 들면 上古시대나 夏·商시기나 魏晉·南北朝 시기의 경우 다른 시기에 비해 전통 극목이 상대적으로 적다. 이것은 각 조대 역사에 대한 중국의 역사적 평가와 무관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이며 이러한 영향이 연극을 즐기는 일반 중국인들에게도 어느 정도는 시대에 대한 선호도로 작용했으리라 여겨진다. 上古시대는 三皇五帝의 신화의 시대로 중국의 신화는 전해지는 과정에서 散失되어 단편적인 신화만 남게 되었는데, 그마저도 고인들의 저작 속에 분

산되어 있던 까닭에 내용상 체계화되어 있지 못하다. 중국은 뒤늦게 신화의 가치를 발견해 서둘러 신화의 체계를 구축하고 있지만 清末까지만해도 그러한 인식이 성숙하지 않았을 때라 『音配像』내 이 시기 작품은 포함되지 않은 것이라 볼 수 있다. 중국의 신화 가운데 경극 작품으로 만들어진 이야기들은 가장 유명하면서도 인구에 회자되는 이야기들로 천지개벽 신화를 소재로 한 「開天闢地」, 大禹가 황하를 다스리는 내용의 「大禹治水」, 항아가 후예를 버리고 달로 달아난 이야기인 「姮娥奔月」 등이 있다. 중국인들이 좋아하는 소재에 극적인 재미도 있지만 현재의 경극 무대에서는 거의 공연되고 있지 않은데, 아마도 신화라는 소재가 경극 무대에서 표현되기는 적당하지 않은 부분도 있고, 민국시기를 고려하여 볼 때 신화와 같은 비현실적인 내용보다는 현실적인 작품을 더 선호해 공연이 점차 줄었으리라 생각된다. 그러나 이 소재들은 후대로 와서는 극장 시설이 현대화되면서 수준 높아진 무대효과에 힘입어 전통극 자체보다는 오히려 현대극으로 새로이 인기 있는 소재로 활용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夏왕조 역시 20세기 이전까지는 고서에만 기록되어 있을 뿐, 전설적인 존재에 불과했다. 20세기에 들어서 중국은 국가적 학술 연구 사업인 ‘하상주 단대사 프로젝트(夏商周斷代工程)¹³⁾’을 통해 전설로만 전해지던 4천여 년 전 하나라, 상나라, 주나라의 역사를 새롭게 재건하였다. 이에 따르자면 殷 왕조는 중국 最古의 역사적 왕조라 할 수 있다. 이 시기를 배경으로 한 작품들 가운데에는 중국 명나라 때의 장편소설인 『封神演義』의 이야기를 소재로 한 작품이 대부분을 차지한다. 『封神演義』는 宋代에 쓰여진 『全相平話』 가운데 『武王伐紂平話』를 바탕으로 하고 있고, 殷나라와 周나라 교대에 관한 傳承說話에 明나라 후반에 일어난 三教合一思想, 민간의 설화와 신앙 등을 혼합하여 저작한 것으로 『西遊記』, 『平妖傳』 등과 함께 명 시대 神仙妖怪의 靈異妖術을 서술한 것이다. 따라서 『音配像』내에는 「鹿台恨」

13) “‘九五’国家重点科技攻关项目”이라고도 하며 1996년에서 2000년까지 진행된 중국 문화사업이다. 历史学, 考古学 등 여러 분야의 학자들 200여명이 모여 2000년 「夏商周年表」를 발표해 중국 역사시대의 시작을 1200년 앞당기면서 많은 국내 외 역사학자들의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한 작품만이 전하는데 중국 당국의 미신과 관련한 입장이 반영된 듯하다. 「鹿台恨」은 『봉신연의』 25, 26회의 내용으로 「史記.殷本紀」의 紂王과 比干의 대화를 바탕으로 『武王伐紂評話』의 내용을 극화한 것으로 老生배우인 周信芳의 대표작품 중의 하나이다.

魏晉·南北朝를 살펴보면 경극극목의 작품수가 상대적으로 매우 적은데 이 시기는 三國시대와 隋나라의 중간시대에 해당하며, 東晉 이후 중국은 남북으로 분열되어 각각 왕조가 교체해 흥망하게 된다. 남조시대는 귀족시대라고도 하는데 황제권이 미약해지고, 귀족 및 호족의 권력 강대해지면서 정치적 우월성 인정하면서 사회경제적으로 문벌 귀족 사회가 형성되었기 때문이다. 또한 유교보다 불교와 도교가 성하였던 시기이기도 하다. 불교는 남조에서 불법을 존중하는 황제까지 나타났고, 북조에서는 국가 불교적인 성격이 강하여 雲崗, 龍門석굴과 같은 대대적인 造佛事業이 성행하였다. 이러한 시대적 특성은 사실 극적인 흥미를 주기에는 적합한 소재가 많지만 아직도 공연되고 있는 작품은 단 3작품에 불과하다. 이것은 중국정부의 사회주의 정책과 무관하지 않아 보인다.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因果報」와 같은 작품에는 여러 신선들이 등장하고, 觀音이 등장하기도 한다. 또 梁武帝가 불교에 심취한 내용을 다룬 「佛心皇帝」와 같은 작품도 있다. 또한 梁山伯과 祝英臺의 사랑을 소재로 한 경극작품으로는 「柳蔭記」, 「梁山伯與祝英臺」 등이 있는데 특히 『音配像』내에는 「柳蔭記」와 「英台抗婚」 두 작품이 杜近芳, 叶盛兰, 程砚秋 등에 의해 공연되어 많은 사랑을 받았다. 근래에도 자주 공연되고 있으며 인형극, 만화영화, 영화로도 만들어져 시대를 넘어서 사랑받는 이야기임을 알 수 있다. 역사경극으로는 「除三害」가 있는데 『晉書』를 바탕으로 한 龍驤 장군 王濬과 세 가지 해악(三害)가운데 하나로 지목받았다가 改過遷善한 周處의 이야기로 여러 레퍼토리로 극화되었고 지금도 자주 공연되고 있는 작품이다.

元은 중화세계가 유목세계인 몽골족에 의해 지배당하고 독립성을 잃게 된 시기이다. 무슬림 상인 등 色目人의 협력을 얻은 몽골족은 중화세계의 전통을 무시하고 ‘몽골인 제일주의’에 의해 고압적인 지배를 실시했다. 몽골족이 분류한 4계급 가운데 최 하위였던 漢족의 지식인들은 과거제도 폐지나 신분

차별 등 몽고군의 압제로 이상을 펼치지 못하고 암울한 현실을 벗어나기 위한 예술 창작에 열중했다고 이해되고 있다. 불교와 도교 등의 종교 활동도 활발하게 일어나 민중들의 안식처가 되어주었다. 원대는 또한 중국 戲曲의 완전한 雛形을 갖추었다는 雜劇이 발달한 시기로 많은 극작가들이 작가 군을 이루면서 등장하고, 역사적 소재 뿐 아니라 많은 창작 이야기들이 만들어졌다. 그 대표적인 작품으로 關漢卿의 『竇娥冤』이 있다. 경극 「竇娥冤」은 元雜劇의 내용에 풍부함을 더해 극의 완성도를 높였으며, 두아가 죽지 않고 父女가 만나는 『金鎖記』傳奇와 다르게 비극적인 결말을 유지하고 있다. 『音配像』에도 「竇娥」, 「六月雪」의 극목이 있으며 程硯秋, 李世濟 등이 공연하였다. 이 시기를 다룬 경극 작품은 다른 시기와 비교해 많지는 않다. 그것은 이민족의 지배를 달갑지 않게 생각했던 한족들의 생각이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실제로 이러한 생각이 반영된 작품들도 찾아 볼 수 있다. 경극 「得意緣」에서 주인공 狄龍康은 송의 장군이었던 아버지가 나라가 망하고 元에 항거하다 순직하자 가족들과 함께 숨어 산다. 그러나 몽골 장수에게 애인을 빼앗기고 본인은 강에 던져졌다가 다시 살아나 몽골장수를 죽이는 내용의 10本이나 되는 大作으로 만들어졌다. 또한 원말에 몽고군을 몰아내는 朱元章의 활약을 그린 작품도 많은데 「百花贈劍」이나 「九江口」, 「战太平」은 그 중 자주 공연되고 있는 작품이다. 특히 『音配像』에도 포함된 「战太平」은 『明史·列傳』第177에 실린 주원장의 大將 花雲의 일로 역사에 대체로 부합된다. 화운이 주원장의 조카인 朱文遜을 보좌해 太平城을 지키다가 北漢王 陳友諒에게 속아 포로가 된다. 주문손은 진우량에게 죽임을 당하고, 진우량은 화운을 설득하나 화운은 가짜로 항복을 하고 탈출해 도망가다 탈진해 자결한다. 명대 張鳳翼이 지은 『虎符記』傳奇에서는 화운이 죽지 않고 오히려 진우량을 죽이지만 경극에서는 역사의 결말을 그대로 따랐다.

(2) 민간예술의 영향

중국 희곡은 발생적으로도 형태와 기능에 있어서도 민간 문학, 민간예술과의 상관관계가 매우 밀접하다. 중국 민간 문학의 주요 양식인 장회소설은 당송시기에 대두한 강창양식들 가운데 한 갈래가 評話와 詞話와 같은 읽는

텍스트의 형태로 발전해 된 것이다. 또 비록 읽는 텍스트이긴 하지만 사대부들을 위한 것이 아닌 서민계층의 오락적 요구에 부응하여 주로 여가서나 민간 설화의 이야기들을 각색하여 대중적이고 통속적인 형태로 가공하여 최대한 흥미있게 들려주는 방식을 취하였다. 이러한 이야기들은 인형극이나 춤 등의 기타 예술 형식으로 재창조되었고 동시에 다양한 지방극의 형태로도 만들어 지는 등 민간예술간에 상호 영향을 주었다. 그리고 이들 가운데 우수 극목들은 경극으로도 만들어졌다.

특히 춘추시대의 역사적 인물들의 이야기는 이야기 자체의 힘 뿐 아니라 민간예술 작가들의 극적인 전개에 힘입어 인기를 끌었다. 이러한 이야기가 힘을 얻는 것은 시대 자체가 가지는 흥미와도 무관하지 않다. 춘추 시대에 들어서면 주나라 왕실의 세력이 점점 약해져 천자로서의 위력이 없어지고 대신 강력한 제후들이 서로 패권을 다투게 되는데, 주나라 초기에 100~180여 국이나 되던 제후의 수가 마침내는 10여 개국으로 압축되면서 이 가운데 패권을 잡은 春秋五霸들의 이야기는 그 곡절이나 긴박감 등을 볼 때 사람들의 흥미를 끌어 문학으로든 인형극이나 춤 등 기타 예술형식으로 재창조되었다. 경극 또한 예외가 아니어서 이 시대를 소재로 한 많은 작품이 만들어졌는데 대부분의 소재는 『東周列國志』 演義와 유사하지만 인물과 사건은 『左傳』, 『戰國策』, 『國語』, 『史記·伍子胥列傳』, 『史記·吳越世家』, 『吳越春秋』 등의 史料를 근거로 하고 있다. 예를 들어 「掘地見母」, 「伐子都」, 「焚綿山」 등등의 작품들로 약 90여 이상의 극목을 들 수 있다. 그 가운데 『鼎盛春秋』는 「战樊城」, 「长亭会」, 「文昭矣」, 「蘆中人」, 「浣紗記」, 「魚腸劍」 등 伍子胥의 이야기를 엮은 각각의 레퍼토리를 묶은 총체적인 작품이다. 「战樊城」은 伍員과 伍尙 형제가 樊城을 지키다 費無極의 계략으로 伍尙은 궁으로 가 아버지 伍奢와 함께 죽임을 당하고 伍員은 費無極가 보낸 武城黑을 죽이고 번성을 탈출하는 내용으로 『左傳』 ‘昭公二十年’ 조에 기록이 있으며 元대 高文秀의 『伍子胥棄子走樊城』 잡극이 있다. 「文昭關」은 伍子胥가 吳나라로 들어가기 위해 우여곡절 끝에 昭關을 넘어가는 내용으로 「战樊城」과 함께 唱工을 중시하는 老生戲로 많은 중국인들의 사랑을 받고 지금도 자주 공연되고 있다.

또한 唐대는 중국 역사상 실크로드를 통한 교역이 가장 왕성하게 일어나던 시대로 文成公主를 통해 티베트와의 결속이 이루어졌고, 제국의 세계화와 함께 많은 한족 승려가 인도로 건너가 불교의 중국화가 진행된 시기이기도 하다. 이러한 내용을 담은 명대 소설 『西遊記』물론 기타 역사소설과는 다르지만 시대상을 반영하고 있으며 민국시대에 경극으로 만들어진 이래로 무대에는 처음으로 인간인 현장법사가 아닌 원숭이를 주인공으로 하는 손오공의 ‘猴戏’가 민국시대 경극 무대에 등장하게 된다.¹⁴⁾ ‘猴戏’는 관객들에게 많은 볼거리를 제공하면서 관객들에게 환영을 받았다. 이 시기를 다룬 작품들로 『西遊記』를 소재로 한 작품이 수적인 면에서 매우 우세한데 이는 손오공이라는 캐릭터가 무대 위에서 보여주는 독특한 매력 덕분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音配像』에는 선정되지 못했는데 그 이유는 명그를 중시하는 『音配像』의 제작 목적에 부합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이 시기를 다룬 작품 가운데 『音配像』에 포함된 「汾河湾」, 「柳迎春」, 「姑嫂英雄」, 「樊江矣」등은 모두 武將 薛仁貴의 행적을 소재로 한 것이다. 중국 역사에서 설인귀는 당 고종의 생명을 구한 바 있고 고구려와의 싸움에서도 용맹을 떨치고 큰 업적을 세운 바, 그를 노래하는 많은 레퍼토리가 남아 있는 것은 어찌 보면 너무도 당연하다 하겠다. 그러나 의외인 것은 이러한 작품들이 설인귀의 용맹을 노래하고 있기 보다는 설인귀가 오랜 戰場생활로 부인인 柳迎春과 헤어져 있다가 다시 만나는 내용을 극화한 것이라는 사실이다. 또한 「武家坡」, 「算粮」, 「大登殿」 등의 작품에서도 주인공이 薛平貴와 王寶釧으로 이름도 다르고 내용도 다르지만 역시 18년 동안 헤어져 있던 부부의 재회를 다루고 있고 극중 부인의 역할이 큰 것으로 보아 관객의 선호도에 따라 이야기에서 점차 그 배우의 비중이 높아진 것으로 보인다.

또한 漢代 패왕의 이야기 역시 민간의 소재를 바탕으로 다양한 민간예술형태로 만들어지고 공연되었던 작품으로 당시 사회분위기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 당시 漢나라는 중국역사상 최초의 대제국으로 중국 전통의 원형이 갖추어진 시기이다. 사회적, 문화적 환경 또한 크게 변화하여 수도였던 장안은 인

14) 李仲明, 「民国“猴戏”的南北流派」, 『民国春秋』, 1994년 01期

구 100만에 육박하는 대 도시로 성장하였으며, 洛陽, 南海, 南京 등 각지의 대도시들이 형성되었다. 서민들의 경제적 여유 증대, 도시의 발달 등에 힘입어 중국의 공연예술은 새로운 발전의 단계로 접어들었다. 이 시기에는 『史記』와 『漢書』에서 소재를 얻은 한고조 劉邦과 패왕 項羽의 이야기가 사람들의 흥미를 끌며 많이 극화되었고, 그중 패왕과 虞姬의 사랑이야기는 패왕의 이미지를 신중하고 순정을 지닌 사나이의 형상으로 바꾸어 놓았다. 경극 작품으로는 『史記』 가운데 『高祖本紀』나 『黥布列傳』, 『劉侯世家』, 『陳余列傳』, 『項羽本紀』 등의 내용을 소재로 한 『漢劉邦』이 10본까지 씌어졌다. 그러나 극적인 흥미를 위해서인지 『西漢演義』의 내용을 바탕으로 하여 신선이 劉邦으로 재탄생하는 내용이나 呂雉와의 혼인에 얽힌 일 등이 역사 기재와는 일정 부분이 다르다. 그 외에 『史記·項羽本紀』를 소재로 한 「霸王別姬」는 『西漢演義』 가운데 78~84회의 내용을 극화한 것으로 명대에 『千金記』傳奇와 『赤松記』傳奇로도 만들어진 바 있고, 경극 작품에도 동일한 소재를 다룬 레퍼토리들이 많다. 그 외에도 『音配像』에 포함된 「上天台」는 東漢 光武帝 劉秀와 郭妃, 장군인 姚期와 그의 아들 姚剛간의 일을 다루고 있다. 姚剛이 실수로 郭妃의 아버지와 남동생을 죽이게 되어 郭妃의 미움을 사고 君臣간에 反目하게 되어 술에 취한 유수가 부하들을 죽이는 실수까지 하게 되지만 결국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郭妃를 죽인다는 내용이다. 「姚期」나 「打金磚」 역시 같은 내용을 다룬 극으로 다양하게 극화되었지만 역사에는 전하지 않으며 『東漢演義』나 『東漢』評書에도 전하지 않는다. 『後漢書』에도 역시 劉秀가 공신을 죽인 일은 없어 역사적인 사실과는 상관없이 극적 재미를 위해 재구성된 부분임을 알 수 있다.

(3) 선명한 의도의 표출

역사경극의 전통극목들 가운데는 분명한 애국사상이나 忠義를 강조한 작품들이 많다.

‘三國戲’가 대표적이라 할 수 있는데 ‘三國戲’에서도 「群英會」는 각 行當 뿐 아니라 唱做念打가 모두 등장하는 대작으로 많은 배우들이 공연을 한 바 있고 지금도 자주 공연되는 작품이다. 이시기는 秦·漢과 隋·唐의 두

통일 시대를 잇는 정치적 분열기이고, 문화적으로는 다양하면서도 통일성이 있는 특유한 성격을 지닌 시대이다. 三國의 정립으로 五胡十六國이 시작되며 이 시기는 중국 역사상 긴 시대는 아니지만 소설이나 설화, 희곡 등 많은 작품이 만들어져 중국인들에게 오히려 영향력이 크게 미친 시대라고 할 수 있다. 三國과 관련해서는 단일 소재로는 가장 많이 경극 작품으로 만들어졌는데 거의 元대 至治年 刊本인 『三國志評話』와 元明 『孤本元明雜劇』뿐만 아니라 羅貫中의 『三國演義』에서 소재를 극화한 작품들이다. 소설 내 등장하는 인물과 사건 자체도 흥미진진할 뿐 아니라 경극이라는 공연예술의 특성상 많은 볼거리를 제공하는 경극에서의 ‘三國戲’로 불리며 길지 않은 세월 동안 반복되어 공연되어 오면서 예술적 성취나 인물 형상에서 완성도가 높다. 『音配像』내에도 이러한 영향으로 많은 작품이 포함되어 있으며 각 유파의 많은 배우들이 참여하고 있다.

그 가운데 「群英會」는 『三國演義』 45, 46회의 내용을 바탕으로 한 것으로 실제 역사기록과는 약간의 차이가 있는데 孔明이 화살 10萬개를 조조로부터 빼앗아 周瑜에게 주는 내용이 사실은 『吳書·吳主權傳』에 의하면 孫權의 업적이었다. 그러나 『三國志評話』에서는 周瑜가 한 일로 되었다가 『三國演義』에서는 孔明이 낸 꾀로 바뀌고 경극 「群英會」 역시 『三國演義』의 내용을 따랐다. 이처럼 三國戲의 많은 작품들은 대부분 『三國演義』의 내용을 따르고 있어, 이는 소설 『三國演義』가 당대 뿐 아니라 후대까지도 널리 읽히면서 대중화되었기 때문에 경극 뿐 아니라 희곡 전반에 있어 공통적인 성격이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겠다.

물론 일부 『三國演義』와 다른 내용의 극목도 보이는데, 孫權의 이복여동생으로 劉備와 결혼한 孫尚香은 유비가 사망했다는 소식을 듣고는 바로 강가로 마차를 몰고 가 통곡을 하고는 강에 몸을 던지는 내용이 『三國志評話』에서는 張飛의 나무람을 수치스러워 해 강에 뛰어들어 자진한 것으로 나온다. 그러나 경극 「別宮·祭江」에서 孫尚香은 유비가 白帝城에서 죽은 것으로 알고 강으로 가 제사지내려 하나 어머니가 허락하지 않자, 孫尚香은 다시 청해 허락을 얻어내 강가로 가 유비에게 제사지내고 강에 뛰어들어 자진한다. 이후 龍王에 의해 여신으로 봉해지는 내용으로 바뀐다. 뒤의 전개가 황당하

기는 해도 경극 「別宮·祭江」은 지금도 인기리에 공연되고 있는 작품으로 배우의 노래 연기력(唱工)을 보여주는 작품인데, 배우의 연기를 통해 내용과 인물의 감정 전개가 자연스럽게 표현되어 관객에게 효과적으로 전달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 외에 주유가 荊州를 얻고자 劉備를 黃鶴樓로 청해 연회를 마련하는 내용의 「黃鶴樓」 역시 正史와 『三國演義』에는 보이지 않는 내용으로 원대 잡극 『劉玄德醉酒黃鶴樓』과도 차이가 있어 경극이 독자적인 내용으로 만들어지기도 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환관의 횡포를 비판하는 작품들도 다수 있는데 특히 명대에 劉瑾이나 魏忠賢, 嚴崇 등 환관의 횡포가 심했던 만큼 이들을 비판하는 관점의 작품들이 많이 씌어졌다. 明代는 중국이 근대화하는 시기와 직접 접촉되는 시대로서 중요한 성장·변혁기로 洪武帝와 永樂制의 치세로 변영기를 누렸고, 鄭和의 여섯 차례의 원정이나 만리장성의 건설로 국력을 떨쳤던 시기이다. 이 시기는 사상통일을 위한 대규모 사전사업이 진행되었고, 문학적으로는 4대奇才가 나오는 등 소설이 발달하였으며 戲曲 역시 최고의 문인들이 작품을 창작하기 시작하면서 작품이 가지는 문학적인 가치는 높아졌으나, 지나치게 雅化되는 경향으로 흐르기 시작한다. 또한 이 시대를 배경으로 한 경극 작품들의 특징이라고 한다면 嘉靖년간을 배경으로 한 작품들이 많은데, 이는 世宗이 道敎를 광신하고 환관의 횡포와 함께 여러 대에 걸쳐 축적한 국고를 탕진하여, 재정공핍 속에 몽골족과 왜구에게 시달림을 당하였던 시기인 것과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 시기를 배경으로 한 레퍼토리들을 살펴보면 역사 이야기를 다루었다기보다는 시대 배경이 명대 일뿐, 주로 宋代 話本 『京本通俗小說』, 明末 馮夢龍의 『醒世恒言』, 『喻世名言』, 『警世通言』이나 清代 吳敬梓의 『儒林外史』등 소설의 내용을 희곡으로 옮긴 명대를 배경으로 한 작품들이 많다. 『音配像』 역시 같은 상황으로, 明史 가운데 張居正, 戚繼光, 嚴崇 등의 일을 다루었지만 역사 이야기 보다는 傳奇, 說話에서 전해지는 이야기를 더 선호한 것으로 보인다. 이 가운데 몇 작품을 살펴보면 「大保國」, 「探皇陵」, 「二進宮」은 穆宗이 어린 神宗을 남기고 세상을 떠나자 李太后의 아버지 李良이 황위를 찬탈하려 계략을 꾸미고 후에 李太后는 충신들의 도움으로 다시 황위를 되찾는 내용으로 『明紀』에 실

린 기록을 근거로 부연해 만든 것이다. 이 세 작품은 내용 전개상 서로 연결되는 내용으로 자주 함께 공연되기도 한다.

「大红袍」역시 가정 연간의 일로 『明史』와 『明紀』에 기록되어 있으며, 嚴崇이 전횡을 휘두르자 海瑞가 嘉靖帝의 失政을 직간하여 옥에 갇혔다가 가정제의 죽음으로 석방되는 내용으로 전체 10本の 대작이다. 청백리 海瑞를 주인공으로 한 작품들은 다양한 레퍼토리로 공연되었는데 문화대혁명 시기 剖棺斬屍 까지 되었던 海瑞가 2007년에 다시 공산당에 의해 TV드라마로 제작되었다는 소식¹⁵⁾은 역사의 아이러니 이면서 정의는 시대를 넘나들어 인정받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다 하겠다.

힘없는 백성들의 힘이 되어주는 인물의 등장 역시 관객들이 좋아하는 테마이다. 청대 말엽에는 무협소설 『兒女英雄傳』이나 『淸史列傳』에 기록된 彭鵬을 주인공으로 한 『彭公案』, 康熙때 施士倫을 주인공으로 한 『施公案』 등의 公案小說이 씌어져, 백성들을 편안하게 하고 폭정에 대항하며 나라를 위해 공을 세우는 것을 묘사하였다. 이러한 작품들은 당시 많은 인기를 끌고 민간에서 광범위하게 유포되었고, 희곡작품으로도 만들어졌는데 이 시기를 다룬 경극 작품은 공안 소설을 주 내용으로 하여 쓰인 작품이 많다. 특히 소설을 바탕으로 한 경극 『兒女英雄傳』이 8本까지 씌어졌으며 관련한 많은 극목들이 남아 있는데 경극 작품에는 소설 중에 없는 何玉鳳이 장수가 되어 番王을 평정하는 내용이나 紀獻唐의 아들 多文의 등장하는 등 관객의 시각을 고려한 경극의 무대 연출을 위한 改作이 있었음을 짐작케 한다. 『音配像』에 포함된 작품으로는 「十三妹」와 「悅来店」, 「能仁寺」이 있는데 杜近芳, 叶盛兰, 尚小云, 荀慧生 등 큰 배우들에 의해 공연되었다. 또한 施士倫을 주인공으로 한 『施公案』도 다양한 극목으로 각색되어 공연되었다. 그 가운데 이 시기 경극 작품에서 아쉬운 부분은 『紅樓夢』을 극화한 경극 극목이 많이 남아있지 않다는 것이다. 실제 『音配像』에 포함된 작품은 尤二姐와 尤三姐의 비극을 다룬 「紅樓二尤」 뿐으로 『紅樓夢』은 실제로는 청말에 陳鍾麟에 의해 『紅樓夢傳奇』로 만들어졌고 1962년에 이미 越劇으로

15) 최규현, 「다시 부각되는 ‘청백리’ 하이루이(海瑞)」, 『헤럴드경제』, 2007.03.06.

영화화되어 이후 越劇의 대표 극목으로 손꼽히고 있어 경극보다는 越劇의 레퍼토리로 더 인정을 받고 있다.

(4) 배우와 극작가의 영향

역사 경극의 전통극목이 긴 생명력을 유지할 수 있었던 데는 명 배우들과 명 극작가의 영향을 빼놓을 수 없다. 중국의 경극은 배우의 연극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며, 극목자체가 ‘배우’이다. 같은 극목이라 해도 그 배우만이 보여 줄 수 있는 기풍의 연기가 있고 배우들은 자신의 연기를 갈고 닦아 경지에 이르러 관객들의 심판을 받은 후 성공하게 되면 인기와 함께 일종의 一家를 이루게 되고 그의 연기를 배우고자 하는 제자들이 그의 예술의 뒤를 잇게 된다. 경극전통극목에는 이러한 ‘派’를 형성한 배우들이 다수를 이루고 있으며 이것은 전통극목이 계속해서 남아있을 수 있는 하나의 힘이 되기도 한다.

중국에서 1985년부터 2006년까지 진행되었던 ‘中國京劇音配像工程’에 포함된 작품들은 중국 戲曲계에서는 보존할 만한 가치가 있는 우수한 극목이라는 평가를 받은 작품들로 『音配像』에 수록되어 있다. 또한 이 작품들은 중국 중앙방송국 텔레비전 CCTV에서 ‘中國京劇音配像精粹’라는 프로그램에서 계속해서 방송되고 있어 시청자들이 경극전통극목을 계속해서 감상하며 고전극임에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는 낯설지 않게 하는데 한몫을 하고 있다. 이들 극목들은 모범이 될 만한 좋은 시청각자료가 있고 명배우들의 제자들이 계속해서 명맥을 이어나가기에 희곡학교에서나 경극 애호가들에게 교과서처럼 쓰이고 있다. 희곡학교의 졸업 공연이나 아마추어들의 공연에서도民工을 위주로 한 작품이라면 『音配像』의 작품들이 무대에 많이 오르고 있다. 연구자가 경극을 배우면서 처음으로 배웠던 「貴妃醉酒」가운데 한 대목인 ‘四平調’나 「霸王別姬」가운데 한 대목인 ‘南梆子’은 경극에서 큰 역할을 처음 배우는 사람들이라면 반드시 거쳐야 하는 곡이 된 것이다.

이들 배우들은 전해 내려오는 전통극목을 자신의 스타일에 맞게 새롭게 변형시키기도 했는데 예를 들어 『舊唐書·玄宗紀』를 소재로 한 작품들 가운데 「貴妃醉酒」는 『新唐書·后妃傳』의 양귀비에 대한 묘사에 민간에 전해

내려오는 내용을 허구로 첨가해 만들어졌는데 그 배우인 梅蘭芳의 대표작으로 예술적 성취가 뛰어나 자주 무대에 오르는 레퍼토리이다. 경극계의 큰 스승으로 불리는 梅蘭芳은 예술적인 안목과 각고의 노력으로 경극을 세계적인 예술의 반열에 올려놓은 인물로 그의 많은 대표작 가운데 하나인 「宇宙鋒」 역시 『史記·秦始皇本紀』를 극화한 것으로 원래 「一口劍」라는 제목의 梆子戲로 우리가 지금 볼 수 있는 경극 「宇宙鋒」과는 매우 차이가 있다. 내용은 秦二世인 胡亥와 충신인 匡宏 부자와 간신인 趙高가 죄인을 먼저 처벌한 후 황제에게 인가를 받는 막강한 힘을 가진 검, 宇宙鋒을 둘러싼 이야기로 장편에 老生 위주의 극이었다. 그러나 중국의 경극 大師로 불리는 梅蘭芳이 趙高의 딸인 趙艳容을 맡아 그 위주의 극으로 바꾸어버렸다. 趙高의 딸인 趙艳容은 작품 속에서 미친 척하며 조정에서 胡亥를 대범하게 비난하지만 실제로 역사에는 등장하지 않는 인물이고 또한 처음으로 미친 척하는 연기를 경극 속에 선보여 본 작품은 분장이나 연기에 있어서도 경극사상 일대 변화를 일으킨 성공적인 시도로 평가되고 있다.

또 유명 배우의 참가로 해서 작품의 내용이 바뀌는 경우도 있다. 『音配像』에 포함된 극목 가운데 「連環鬪」는 『施公案』 7集 第1~9回, 17~34回까지의 내용을 다루고 있다. 그 가운데 「坐寨盜馬」는 連環鬪의 산채주인인 竇爾墩이 黃三太에게 복수를 하고자 궁으로 잠입해 파수꾼을 죽이고 御馬를 훔쳐 오는 돌아오는 내용이다. 이 작품은 처음에는 武生 위주의 극이었으나 淨角 배우인 金少山이 공연에 참가하면서부터 淨 위주의 극으로 바뀌게 된다. 배우의 참여와 기량이 극 자체의 성격을 바꾼 일례라고 할 수 있다.

이들 배우와 함께 극작가들의 역할 또한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데 서양극과는 달리 작가나 극작가들의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적기는 하지만 梅蘭芳과 함께 「霸王別姬」를 완성한 齊如山(1875-1962)이나 감독과 연기에도 일가견이 있었던 歐陽予倩(1889-1962)등 이들 극작가들 역시 희곡의 이론과 실제에 조예가 깊어 극목의 수준을 높이고 예술작품으로서의 완성도를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어떻게 보면 평범한 극으로 그다지 관객의 주목을 끌지 않았던 작품들이 지금까지 무대에 계속해서 오르는 극목으로 남아있지 않았을 수도 있었는데 유명 배우들과 극작가들의 손을 거쳐 다시 태어나 관객

들의 사랑을 받고 지금까지 남아있다는 것에서 이들 배우와 극작가들의 경극 극목에 대한 영향력을 확인할 수가 있다.

3. 결론

본 논문은 경극 가운데 역사극의 작품 분석을 통해 역사적 사건과 인물을 이해하고 중국인의 역사관과 심미관을 살펴보고자 진행된 연구의 선행과제로써 각 조대별 작품들과 특징을 파악하는 단계이다. 각 조대별로 전통극목을 선별하고 현재 공연되고 있는 작품 간의 동일성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동일극목인가의 여부를 확인하는 과정이 비교적 까다로웠다. 이는 하나의 극목이 처음에 만들어지고 서서히 인기를 끌며 다양한 배우와 극작가들에 의해 세분화되거나 통합되어 각기 새로운 이름이 붙여지고 그 가운데서도 살아남은 극목과 사라진 극목으로 나뉘면서 명칭 상에 혼동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과정 또한 관객들의 선호도에 의해 수명이 늘거나 주는 무대 공연의 한 특성으로 자연스럽게 할 수 있다. 이러한 극목들에 대해서는 후속 연구를 기대해 볼 수도 있겠다.

본 논문에서는 방대한 경극 극목 가운데 역사적 인물, 또는 사건을 배경으로 하는 전통극목들의 朝代별 파악을 통해 중국인들이 각 조대별 선호하는 시대와 사건, 인물 등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따라서 두 가지 단계로 연구를 순차적이면서 유기적 관계를 가지고 진행하였다. 먼저 역사의 측면에서 한 시대를 파악하고, 중국 역사상 그 시대가 가지는 의미를 조명하였다. 다음으로 경극의 측면에서 극화된 역사적 인물이나 사건이 어떠한 내용으로 변형되었는지, 또는 어떻게 이미지화 했는지를 고찰하였다.

조대별 파악을 통한 역사경극의 대체적인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경극 레퍼토리에서 역사극이 많은 이유에 대해서는 중국인의 敍事 전통과 史傳 전통을 이야기 할 수 있다. 다수의 중국의 소설과 희곡 작품들이 역사를 소재로 해서 쓰인 것에서 알 수 있듯이 기본적인 모델들이 제시되어

있고 명확한 기승전결을 가지고 있어 극화하기에 유리한 측면이 있다. 또한 『史記』나 『戰國策』와 같은 역사서가 대중적으로 읽히는 중국의 특성 상 경극 뿐 아니라 話劇, TV 드라마에도 역사를 소재로 한 작품이 많다.

둘째, 경극 역사극의 배경이 된 朝代가 兩漢, 三國, 隋唐, 宋, 明代에 집중되어 있는데 이는 경극이 민국시대에 최고 전성기를 누린 사실을 염두에 둔다면 일정 부분 漢族 우위사상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셋째, 경극 역사극 가운데는 애국 충정을 지닌 인물들이 많다. 이는 민국시대 국가가 일본과 서구에 지배당하는 형국에서 애국심을 호소하기 위한 소재들이 많이 발굴된 결과로 보인다.

넷째, 경극 역사극 가운데 단일 소재로 가장 많은 것은 『三國志』이다. 이 소재는 정통 사상, 충군, 의리 등의 요소도 있지만 흥미로운 인물이 가장 많고, 소설 등을 통해 대중화되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다섯째, 경극 역사극 가운데는 배우의 예술적 성취가 극의 완성도에 큰 역할을 차지하는 경극의 특성상 작품의 내용과 인물 형상이 배우의 기량에 의해서도 바뀌어 지기도 한다.

역사경극은 역사를 배경으로 하지만 중국인들이 무대 위에서 보고 싶어 하는 역사는 알고 싶은 역사가 아닌 무대 위에서 실력 있는 배우들에 의해 극화된 역사이다. 물론 여기에는 역사경극에서의 시대구분, 극화되기 전 단계에서의 소설의 영향, 雜技의 영향, 경극이 배우중심의 연극이라는 특성 등 고려해야 할 많은 문제들이 있다. 따라서 다음 단계에서는 이러한 특징들을 고려하여 이번 연구를 토대로 시대별 대표 작품들의 개별 연구를 통해 역사경극이 가지는 역사와 예술작품, 시대와 관객의 문제 등을 좀 더 심도 있게 고찰해야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 參 考 文 獻

- 이남복 편저, 『연극사회학』, 현대미학사, 1996
- 김전기, 조미숙 외, 『문학으로 사회읽기』, 도서출판 박이정, 2003
- Patricia Buckley Ebrey, 『케임브리지 중국사』, 이동진 등 옮김, 시공사, 2002
- 李春植, 『中國史序說』, 교보문고, 2005
- Lynn Hunt 엮음, 『문화로 본 새로운 역사』, 조한옥 옮김, 소나무, 2000
- Horst Steinmetz, 『문학과 역사』, 서정일 옮김, 예림기획, 2000
- Georg Lukacs, 『역사소설론』, 이영옥 옮김, 거름, 1999
- 안상복, 『원잡극 삼국회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논문, 1990
- 이상우, 『원대 역사극 연구』, 전남대학교 박사논문, 1998
- 이유진, 『中國神話의 歷史化研究』, 연세대학교 박사논문, 2004
- 강계철, 『원잡극 삼국회 연구 종술』, 『중국학 연구』, 1997
- 이은영, 「희곡과 소설 속의 “趙氏孤兒” 故事」, 『중국소설논총』, 2006
- 최규현, 「다시 부각되는 ‘청백리’ 하이루이(海瑞)」, 헤럴드경제, 2007.03.06.
- 曾白融 主編, 『京劇劇目辭典』, 中國戲劇出版社, 1989
- 北京市藝術研究所, 上海藝術研究所 主編, 『中国京剧史』, 中國戲曲出版社, 1990.
- 『中國大百科全書·戲曲曲藝卷』, 中國大百科全書出版社, 1983
- 吳同賓, 周亞勛 主編, 『京劇知識辭典』, 天津人民出版社, 1990
- 吳同賓, 『京劇知識手冊』, 天津教育出版社, 1995
- 蘇移, 『京劇二百年概觀』, 北京燕山出版社, 1989
- 崔長武, 『京劇現狀研究』, 中國戲劇出版社, 1996
- 徐培均, 範民聲 主編, 『中國古典名劇鑑賞辭典』, 上海古籍出版社, 1990
- 陈培仲, 「世纪回眸:戏曲传统剧目的整理改编」, 『戏曲艺术』, 1998年03期
- 许思言, 「论京剧剧目中的历史剧」, 『戏曲艺术』, 1987年01
- 余秋雨, 「历史剧简论」, 『文艺研究』, 1980年06期
- 孟度, 「千万不能再折腾了!——漫谈戏曲剧目问题」, 『上海戏剧』, 1980年02期
- 华特生, 「魔术的节目、套目和剧目」, 『上海戏剧』, 1980年02期
- 傅骏, 「戏曲剧目随感」, 『上海戏剧』, 1980年04期
- 高端洛, 「歷史劇與傳說劇的區別」, 上海戲劇 6, 1961.
- 沈起煒, 「談談歷史劇古爲今用的兩個問題」, 上海戲劇10, 1960.
- 楊寬, 「漫談歷史劇如何反映歷史真實問題」, 上海戲劇, 1960, 12期.

吳哈, 「歷史的眞實與藝術的眞實」, 戲劇報 20, 1959.

____, 「談歷史劇」, 文匯報, 1960.12.25.

吳白陶, 「談歷史劇的正名問題」, 江海學刊 5, 1961.

王子野, 「歷史劇是藝術 不是歷史」, 光明日報, 1962.5.8.

张连顺, 「京剧传统剧目的德育内涵」, 『镇江师专学报(社会科学版)』, 1995年02期

國家京劇院 <http://www.cnroc.cn/>

中國中央電視臺 채널11 戲曲頻道 <http://cctv11.cntv.cn/>

長安大戲院 www.changandaxiyuan.com

湖廣會館大戲樓 www.beijinhuguang.com

咚咚鏘中華戲曲網 <http://www.dongdongqiang.com/>

中國京劇藝術網 <http://www.jingjuok.com/>

❖ ABSTRACT

A characteristic of historical Jing-Ju,
through the comparison by each period
- Focusing on traditional repertory

Oh, Kyung-Hee

The background of historical Jing-Ju is a history, but the history Chinese wants to watch on the stage is the history dramatized by talented actors/actresses, not the history they want to learn. This thesis intends to examine traditional repertories whose background is historical people or accidents, among the lots of Jing-Ju repertories by each period, grasp periods, accidents, people, etc. preferred by Chinese and examine how they were dramatized. The general characteristics of historical Jing-Ju, grasped by each period, are as follows.

The first, for the reason that there are lots of historical Jing-Ju in opera repertories, it can be mentioned by Chinese descriptive tradition and historical tradition. As lots of Chinese novels and drama works were written by history, basic models are suggested and clear development is shown, so there is an aspect which is advantageous for dramatization. Also, there are lots of works whose material is history for not only opera but also drama, TV drama because of the characteristics of China where historical books such as 『史記』, 『戰國策』, etc.

The second, the period which is the background of historical Jing-Ju focuses on 漢 period, 三國 period, 隋唐 period, 宋 period and 明 period. It seems to be reflected by Chinese superiority to some degree if considering Jing-Ju was extremely popular during the 民國 period.

The third, there are many characters who have patriotism loyalty among the historical Jing-Ju. It seems to be the result of discovering lots of materials for appealing patriotism in the situation they were dominated by Japan

and the West during the 民國 period.

The fourth, the most single material is 『三國志』 among the historical Jing-Ju. This material has the factors of traditional idea, loyalty, fidelity, etc, but there are the most interesting characters and they were popularized by novels, etc.

The fifth, in the historical Jing-Ju, the contents and character forms can be sometimes changed by character's skill because character's artistic achievement can play a great role for the completion of Jing-Ju.

Key Words

경극, 레퍼토리, 조대, 특징, 역사

Jing-Ju, repertories, period, characteristic, history

논문접수일: 2012. 02. 10.

심사완료일: 2012. 02. 24.

게재확정일: 2012. 03. 16.